

서울 및 경기지역 영유아의 영양법에 관한 실태조사

이 정 윤

서울보건 전문대학 식품영양학과

The Survey of Infant Feeding in Seoul and Kyunggi-Do Area

Jeong-Yun Lee

Dept. of Food & Nutrition, Seoul Health Junior College, Sungnam,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infant feeding through an retrospective survey on feeding method. The survey was executed for 417 mothers bringing up a child below 24 months in Seoul and Kyunggi-Do province from September to October, 1993. Analysing a few influential environmental factors while assessing the level of knowledge today's mother have on infant feeding. Incidence of breast feeding was 27.8% of the interviewed mothers, which showed lower percentages than those of previous surveys. This research proved the major influencing factor generally depended on its mother rather than babies. Generally mothers knew the information of infant feeding, but their knowledge actually didn't work. The source of mothers' informations on the infant nutrition showed the grandmother, books and magazines, doctor were many by the order. Among the reasons of present formula and mixed feeding, 'lack of breast milk' was the commonest as 50.5% and the next reason was 'because of job' as 12.6%.

서론

영아의 건전한 발육을 위해서는 적당하고 충분한 영양의 공급이 필요한 것은 물론 영양섭취의 형식이 성인과 다르고 그 섭취형태는 유아의 식습관을 형성시키는 주요변인이 된다. 특히 6개월 미만 영아의 모유수유는 전염병 및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영양성분의 구성면에서도 우수하고, 면역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자간의 정서적인 유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다.¹⁻⁴⁾ 이러한 많은 잇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러보고에 의하면 모유영양이 감소되고 있고 반대로 조제분유에 의존

하는 인공영양은 증가 추세에 있다.⁵⁻⁷⁾

여기에는 서구의 영양법 경향을 비판없이 그대로 답습한데도 일부 원인이 있겠지만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조제분유를 중심으로 한 인공영양법의 개선, 또한 분유회사의 지나친 선전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¹²⁻¹⁴⁾ 또한 이같은 경향은 도시에 거주하며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더욱 모유영양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영아 영양법에 대한 과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모유영양의 비율이 1967년⁸⁾ 농촌에서 95.1%였으나,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1974년⁹⁾에 54.5%, 1978년⁵⁾에 42.8% 까지 감소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모유양양의 비율은 더욱 감소하여 1987년¹⁰⁾ 28.5%, 1991년¹¹⁾ 22.7% 까지 감소를 보였다.

영유아기의 영양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지역, 어머니의 교육정도, 연령 및 직업, 가정경제수준, 아기의 성별, 출생시 체중, 출생순위, 분만장소, 분만유형 및 산전진찰횟수 등이 보고^{15, 20)}되어 있으며 어머니들의 모유양양에 대한 인식부족과 모유수유에 대한 열의부족으로 모유양양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첫째, 조유섭취실태와 수유영양법 실태를 여러 환경적요인에 따라 분석하여 서울과 경기지역 여성의 수유경향을 알고 모유양양의 권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둘째로는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도와 인공 또는 혼합수유한 이유를 조사하여 영유아 영양법에 대한 영양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만 1개월 이상 24 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약 500명의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1993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서울 보건전문대학 식품영양학과와 전통 조리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조사원으로하여 이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개인 소아과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육아 상담실을 찾아온 아동의 양육인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지에 각기 자기기입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442부이며 이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417부를 자료처리에 이용하였다.

2. 조사 내용

설문지의 조사 내용은 선행연구¹⁶⁾의 문항내용을 발췌한 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수유양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유아의 출생시기, 출생순위, 출생시 체중 및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 일반적인 생활환경에 관한 문항과 분만형태, 산전진찰횟수, 분만장소 등 분만과정에 관한 문항등으로 구성하였고, 수유양양법의 분류는 출산직후부터 현재까지 모유만 수유하고 있거나 모유를 6개월 이상 수유한 경우를 모유양양으로, 출산직후부터 우유를 수유한 경우는 인공양양으로, 출산직후 부터 모유와 우유를 함께 수유한 경우는 혼합양양으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수유양양에 관한 양육인의 인지도에 관한 문항과 수유태도에 관한 문항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pc) program에 의해 전산처리 하였다.

자료의 기술 통계량은 빈도수와 백분율로 계산하고, 대표값으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수유양양법, 수유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독립성의 검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 자료인 경우 χ^2 -test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고 종속변수가 연속형 자료인 경우는 ANOVA와 t-test로 분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아의 일반 생활 환경

조사대상아의 일반 특성 및 가정환경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 분포는 여아보다 남아의 비율이 조금 높은 53.7%였고, 유아의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하가 48.2%, 생후 13-24개월이 51.8%의 분포였으며, 출생 순위는 첫째 아이가 61.4%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고졸이하가 53.0%, 대졸 이상이 47.0%이며 평균 월소득은 80-120 만원인 가정이 37.6%로 가장 많았다.

2. 초유 섭취 실태

우유 및 성숙유에 비해 면역성분이 많은 초유의 섭취상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유를 공급받은 경우는 74.8%이고 공급받지 않은 경우는 25.2%로써 1977년 이¹⁶⁾의 연구에서의 초유섭취 비율 49.1%보다는 무려 25% 정도 높았으나 1991년 송¹¹⁾의 연구 81.8%와는 거의 비슷하여 과거에 비해 초유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유 섭취 상태는 어머니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에 유의적인 ($p<0.01$) 증가를 나타냈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유섭취율이 증가하였다. ($p<0.01$) 또한 자연분만인 경우 초유섭취율이 높았으며, ($p<0.01$) 산전 진찰횟수별로는 산전 진찰횟수가 많을수록 초유섭취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지역에 따른 초유섭취율의 뚜렷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3. 수유 영양법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유방법은 모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유영양의 경우가 전체의 27.8%의 비율이었고, 조제분유만으로 인공영양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34.3%, 혼합영양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37.9%였다. 이 결과는 1990년 이후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송¹¹⁾, 이⁷⁾, 손²¹⁾ 등에 의해 조사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나 과거 1990년 이전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15,17,18)}의 결과와 비교해볼때 최근 현저하게 모유영양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구미제국에서는 모유영양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15%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60%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6개월간 모유수유는 1971년에 5.5%이던 것이 1981년²²⁾에는 28%로 조사되어, 다시 모유영양의 비율이 점차 증가되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모유의 우수성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 홍보 및 모유 먹이기 운동의 전개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한다²³⁾.

조사 대상아의 성별, 출생순위, 출생시 체중에 따른 수유영양법의 차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수유방법에 있어서 아기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출생순위가 둘째, 셋째로 갈수록 모유 영양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초산인 경우 육아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모유수유의 불편함이나 수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유로 모유 영양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출생시 체중에 따라서는 출생시 체중이 무거울수록 유의적으로 인공영양을 더 많이하였다. ($p<0.1$)

수유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측의 요인은 표 4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군에서의 모유영양의 비율은 29.9%, 대졸이상인 군에서는 25.5%로, 학력이 낮을수록 모유영양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한 기존의 조사결과^{27,11)}에 어느정도 부합되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의 연령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볼 수 없었으나 29세 이하 어머니의 29.7%가, 30세 이상에서는 25.4%가 모유수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유영양의 비율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이¹⁶⁾, 김¹⁷⁾ 등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상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수유방법은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의 경우 모유영양이 30.5%, 인공영양이 32.8%이나, 반면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는 모유영양이 20.5%, 인공영양이 38.4%로 전체비율에 비해서 모유영양의 율이 낮았다.

대체로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모유영양의 실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인정하지만 본 조사 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경우에도 모유영양 실천율은 낮았다. 손²¹⁾, 이⁷⁾ 등의 조사에 의하면 경제수준이 높은 군일수록 모유영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조사에서도 월 총수입이 높은 군에서부터 차례로 모유영양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인공영양의 비율은 월 총수입이 높은 군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1$).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수유방법의 실태에 차이를 보여왔다. 송¹¹⁾에 의하면 모유영양비율은 지난 20년동안 내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인공영양 비율보다 높았다고 보고했다. 한편 손²⁾ 등은 수유방법에 있어서 서울과 경기지역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했다. 본 조사결과 지역에 따른 수유방법의 선택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P<0.01$) 서울의 경우 유아에게 모유영양을 실시하는 비율은 32.4%, 인공영양의 비율은 30.6%, 혼합영양의 비율은 37.1%이고 경기지역에서의 모유영양비율은 18.7%, 인공영양비율은 41.7%, 혼합영양비율은 39.6%로 경기지역의 모유영양비율은 낮고 인공영양과 혼합영양비율은 서울지역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매우 흥미있는 결과로써 서울지역은 가장 빨리 변화를 주도하는 집단이므로 현시점에서 모유의 우수성에 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해 나간다면 모유수유율의 증가를 가져올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분만과정요인에 따른 수유방법은 표5에 제시한 바와같이 분만형태에 따라서는 자연 분만인 경우 제왕절개인 경우보다 유의적($P<0.001$)으로

모유영양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제왕절개인 경우 어머니의 입원기간이 길어 모자 동실을 하지 않는 병원인 경우 모자접촉의 어려움이 있고 수술후 모유량이 감소하기 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조사 대상자 전원이 병원에서 분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기초조사¹⁾⁶⁷⁾결과 병원분만인 경우 조산원이나 자택분만에 비해 인공영양이 훨씬 높으며 이는 병원에 모유영양을 저해하는 요인 즉, 신생아실에서 모자동실을 행하지 않고 부조건 분유수유를 하기 때문이라 했다. 따라서 신생아실에서부터 모유수유를 권장해 나가면 모유수유율을 높일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산전 진찰횟수별로는 산전 진찰횟수가 많을 수록 인공영양이 증가하였는데, 산전 진찰횟수는 아마도 산모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할수 있으며 진찰횟수가 10~15회인 경우에 가장 모유영양의 비율이 낮았다($P<0.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infant pairs

	No	%
Sex		
Male	224	53.7
Female	193	46.3
Age(months)		
1- 6	68	16.3
7-12	133	31.9
13-18	113	27.1
19-24	103	24.7
Birth order		
1st	256	61.4
2nd	145	34.8
3rd	16	3.8
Mother's education		
High S.>	221	53.0
College<	196	47.0
Mother's age		
21-29	236	56.6
30>	81	43.4
Income(1000won)		
800>	62	14.9
800-1200	157	37.6
1201-1600	129	30.9
1600<	69	6.5
Total	417	100.0

Table 2. Infant's colostrum intake by mother's general characteristics

	Colostrum				Total	
	Yes		No			
	No.	%	No.	%	No.	%
<u>Mother's age</u>						
21~ 29	190	80.5	46	19.5	236	56.6
30<	122	67.4	59	32.6	181	43.4
$\chi^2=8.65563$	df=1		p=0.0033 < 0.01			
<u>Mother's education</u>						
High s.>	157	71.0	64	29.0	221	53.0
College<	155	79.1	41	20.9	196	47.0
$\chi^2=3.15089$	df=1		p=0.0759 < 0.10			
<u>Labor process</u>						
Spontaneous	241	82.8	50	17.2	291	69.8
Artificial	71	56.3	55	43.7	126	30.2
$\chi^2=31.30803$	df=1		p=0.0000 < 0.001			
<u>Antenatal care</u>						
1~ 5 times	37	71.2	15	28.8	52	12.5
6~10 times	173	81.2	40	18.8	213	51.1
11~15 times	102	67.1	50	32.9	152	36.5
$\chi^2=9.80477$	df=2		p=0.0074 < 0.01			
<u>Area</u>						
Seoul	206	74.1	72	25.9	278	66.7
Kyunggi	106	76.3	33	23.7	139	33.3
$\chi^2=0.12888$	df=1		p=0.7196			
Total	312	74.8	105	25.2	417	100.0

Table 3. Baby factors affecting feeding methods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Mixed Feeding		Total	
	No.	%	No.	%	No.	%	No.	%
<u>Sex</u>								
Male	59	26.3	79	35.3	86	38.4	224	53.7
Female	57	29.5	64	33.2	72	37.3	193	46.3
$\chi^2=0.54688$	df=2		p=0.7608					
<u>Birth order</u>								
1st	69	27.0	85	33.2	102	39.8	256	61.4
2nd	42	29.0	54	37.2	49	33.8	145	34.8
3rd	5	31.3	4	25.0	7	43.8	16	3.8
$\chi^2=2.10963$	df=4		p=0.7156					
<u>Birth weight</u>								
2.7kg >	10	40.0	7	28.0	8	32.0	25	6.0
2.71--3.5kg	78	26.2	97	32.6	123	41.3	298	71.5
3.51--4.0kg	27	33.8	31	38.8	22	27.5	80	19.2
4.01kg<	1	7.1	8	57.1	5	35.7	14	3.4
$\chi^2=11.36087$	df=6		p=0.0778 < 0.10					
Total	116	27.8	143	34.3	158	37.9	417	100.0

Table 4. Mothers factors affecting feeding methods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Mixed Feeding		Total	
	No.	%	No.	%	No.	%	No.	%
<u>Education level</u>								
High S. >	66	29.9	81	36.7	74	33.5	221	53.0
College <	50	25.5	62	31.6	84	42.9	196	47.0
	$\chi^2=3.87943$		df=2		p=0.1437			
<u>Age</u>								
21~29yr	70	29.7	79	33.5	87	36.9	236	56.6
30yr <	46	25.4	64	35.4	71	39.2	181	43.4
	$\chi^2=0.92102$		df=2		p=0.6310			
<u>Job</u>								
Non-Job	93	30.5	100	32.8	112	36.7	305	73.1
Job	23	20.5	43	38.4	46	41.1	112	26.9
	$\chi^2=4.07888$		df=2		p=0.1301			
<u>Income(10000won)</u>								
800>	21	33.9	19	30.6	22	35.5	62	14.9
801-1200	44	28.0	47	29.9	66	42.0	157	37.6
1201-1600	39	30.2	43	33.3	47	36.4	129	30.9
1600<	12	17.4	34	49.3	23	33.3	69	16.5
	$\chi^2=10.70484$		df=6		p=0.0979 < 0.10			
<u>Area</u>								
Seoul	90	32.4	85	30.6	103	37.1	278	66.7
Kyunggi	26	18.7	58	41.7	55	39.6	139	33.3
	$\chi^2=9.73934$		df=2		p=0.0077 < 0.01			
Total	116	27.8	143	34.3	158	37.9	417	100.0

Table 5. Labor factors affecting feeding methods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Mixed Feeding		Total	
	No.	%	No.	%	No.	%	No.	%
<u>Labor process</u>								
Spontaneous	94	32.3	85	29.2	112	38.5	291	69.8
Artificial	22	17.5	58	46.0	46	36.5	126	30.2
	$\chi^2 = 14.30983$		df=2		p=0.0008 < 0.001			
<u>Antenatal care</u>								
5 times >	14	26.9	13	25.0	25	48.1	52	12.5
6-10 times	70	32.9	67	31.5	76	35.7	213	51.1
10-15 times	32	21.1	63	41.4	57	37.5	152	36.5
	$\chi^2 = 10.24851$		df=4		p=0.0364 < 0.05			
<u>Labor place</u>								
Hospital	116	27.8	143	34.3	158	37.9	417	100.0
House	—	—	—	—	—	—	—	—
Total	116	27.8	143	34.3	158	37.9	417	100.0

4. 모유영양의 우수성에 대한 양육인의 인지도

표 6은 대상어머니의 영유아 영양에 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모유영양이 아기의 정서적인 면과 질병예방에 좋을뿐 아니라 경제적이어서 좋다고 응답한 수가 각각 95%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영양소의 양적인 면에서 인공영양이 더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54.2%, 또한 인공영양이 위생적이며 아기의 성장발육에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0.1%와 25.2%로써 이¹⁾ 등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어머니들이 모유영양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유아 영양에 관한 대상어머니의 인지수준은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표 6의 11가지 항목을 맞는답으로 한 항목에 1점씩을 주어 11점 만점으로 평가해 본 결과 (표 7), 전체평균은 9.3 ± 1.6 점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지역이 평균 9.4 ± 1.6 점, 경기지역이 9.1 ± 1.5 점으로 서울지역 어머니의 모유영양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영유아 영양에 관한 인지수준은 모유영양을 실천하는 어머니에서 유의적 ($P<0.001$)으로 높았으며, 모유영양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를 길게하는 유의성을 나타냈다. ($P<0.1$)

따라서 대상어머니들은 모유영양을 실천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길게하는 어머니인 경우에 모유영양에 대한 인지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영양에 관한 지식의 습득원은 할머니를 통해서가 34.5%, 육아서적이나 잡지가 25.4%로 이 두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의사, 다른친척, 남편의 순이었다. 김¹⁾과 김¹²⁾ 등의 보고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병원 의사를 통한 영유아영양법의 교육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산부들은 산전진찰, 분만 또는 유아의 예방접종 등으로 병원출입기회가 잦으므로 병원에서는 어머니 교실등을 열어서 모유영양의 우수성에 대한 임산부들의 교육과 계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림 1. 예서와 같이 영유아 영양에 관한 지식의 습득방법은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 ($P<0.05$)를 보여서 육아서적이나 잡지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비율은 학력이 높은 군에서 높았으며, 할머니를 통해서 또는 T·V, 라디오등의 매스컴을 통한 영유아지식의 습득은 고졸이하인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보아 교육정도가 다른 집단에 대해서 각기 다른 교육매체를 선택한 영양교육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Mother's knowledge for feeding methods by items

Item	Breast feeding is better		Bottle feeding is better	
	No.	%	No.	%
Quality of nutrient	383	34	34	8.2
Quantity of nutrient	191	45.8	226	54.2
Mother's health	337	80.8	80	19.2
Sanitary	333	79.9	84	20.1
Economic	407	97.6	10	2.4
Baby's emotion	415	99.5	2	0.5
Baby's growth & development	312	74.8	105	25.2
Convalescence after delivery	335	80.3	82	19.7
Baby's digestion	392	94.0	25	6.0
Prevention of disease	411	98.6	6	1.4
Prevention of obesity	367	88.0	50	12.0

Table 7. Factors affecting mother's knowledge for feeding methods

	Knowledge level		
Area	Case	Mean	SD
Seoul	278	9.4	1.6
Kyunggi	139	9.1	1.5
t = 1.56	p=0.119 > 0.1		
Mother's education			
High S. >	221	9.2	1.6
College <	196	9.4	1.5
t = -1.38	p=0.167 > 0.1		
Feeding methods			
Breast F.	116	9.8	1.4
Bottle F.	143	9.0	1.6
Mixed F.	158	9.3	1.5
F Ratio=8.4482	p=0.003 > 0.01		
Duration of breast feeding(months)			
1>	139	9.1	1.6
1~3	105	9.3	1.5
4~6	68	9.6	1.5
7~12	83	9.4	1.4
12 <	22	9.7	1.5
F Ratio=1.9984	p=0.0939 < 0.10		

5. 인공 또는 혼합수유한 이유

조사대상 어머니중 인공 또는 혼합영양을 한 30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는 표 8 과 같다. 「모유량의 부족으로」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홍(1982)³¹⁾의 59% , 김(1979)¹²⁾의 60%보다는 낮았으나, 정(1983)¹¹⁾의 41.4% , 김(1985)¹⁷⁾의 41.3% , 이(1992)⁷⁾의 36.2%보다는 높았다. 또한 「엄마의 직업 때문에」가 12.6%로 이 등⁷⁾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어머니가 직업때문에 인공 또는 혼합수유를 한 경우는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되나 모유량 부족의 이유는 아마도 모유양에 대한 임신중의 준비부족, 모유로 꼭 아기를 기르겠다는 산모의 의지약화로 젖을 빨리지 않아 젖의 분비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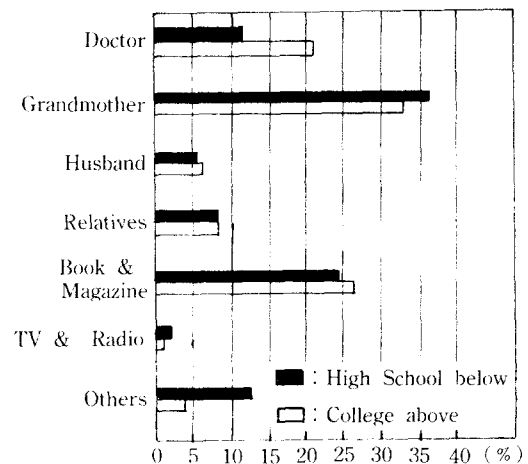


Fig. 1. Information sources on infant feeding and mother's education levels.

Table 8. The reasons of present formula and mixed feeding

Reasons	NO.	%
Baby's refused breast milk	14	4.7
For cosmetic	4	1.4
Not enough breast milk	152	50.5
Convenience	7	2.3
Illness of breast	29	9.6
Dislike of husband	1	0.3
Mother's health	23	7.6
Bottle feeding first at hospital	19	6.3
Baby's illness	14	4.7
Mother's job	38	12.6
Total	301	100.0

요약 및 결론

1993년 9-10월, 2달간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2세 이하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417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여러 환경적 요인이 영아 영양법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모유영양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조사해 본 결과, 모유수유는 전체의 27.8%로 과거 1990년 이전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최근 초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초유의 섭취율은 74.8%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수유영양법은 아기측 요인보다는 어머니측 요인, 특히 교육수준, 경제수준, 분만형태, 산전진찰 횟수등의 영향을 받아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영양이 감소하였고, 분만형태가 제왕절개인 경우와 산전진찰횟수가 많을수록 모유영양의 비율이 낮았다. 모유영양이 아기의 정서적인 면과 질병 예방에 좋을뿐 아니라 경제적이어서 좋다고 응답한 수가 각각 95% 이상을 차지하여 대상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모유영양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영유아영양에 관한 지식의 습득원은 할머니, 유아서적, 잡지, 의사 등의 순으로 임신부들의 병원이용기회가 잦은데 비해 병원 의사를 통한 영유아영양법의 교육이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고, 또한 육아서적이나 잡지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비율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군일수록 많았다. 대상어머니중 301명이 인공 또는 혼합영양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유량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 해 보면 대상 어머니들은 모유영양의 우수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실제 모유영양의 비율은 낮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열의도 부족하였는데, 모유영양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유아영양교육의 강화와 병원의 어머니교실등을 통한 적극적인 모유영양의 권장과 모자동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김충희, 1세 이하 영유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2. 손경희, 윤선, 이영미, 민성희, 전주혜. 서울 및 경기지역 유아의 수유 및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4) : 309, 1992.
3. Peggy L. Pipes, Nutrition in Infancy and Children, 1985.
4. 전인상, 한현석, 안효섭 : 생우유 과량섭취와 관련된 소아 철결핍성 빈혈의 고찰, 소아과, 33(10) : 1374, 1990.
5. 이현금, 최진영, 김철규, 한동관, 현우, 이동기. 한국 어린이의 이유에 관한 조사, 소아과, 21, 664, 1978.
6. 홍순명,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이유보충식에 관한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7. 이연숙, 황계순. 서울 지역 여성의 영아 영양법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7(2) : 97, 1992.
8. 이현금. 농촌지방 이유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 117, 1968.
9. 김경숙. 영아 영양법 및 이유실시에 관한 연구-경기도 인천시내 거주 영아를 중심으로

- 로, 대한간호, 13, 66, 1974.
10. 방홍기, 김경희, 박재옥, 이상주.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소아과, 30(3) : 266, 1987.
 11. 송요숙. 우리나라에서 영아의 수유 및 이유 보충식 급식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영양학회지, 24(3) : 282, 1991.
 12. 김성택. 우리나라 영유아의 영양법 경향에 대한 조사연구, 소아과, 22(5) : 337, 1979.
 13. Bonnie S. , Vermeersch, Williams : Nutrition in Pregnancy and Lactation, 1981.
 14. 정귀영, 이근. 모유실패의 원인, 소아과, 26(10) : 527, 1983.
 15. 주신일, 박인화. 영아기 모유수유실천양상과 연관요인 분석, 대한보건협회지, 10(1) : 3, 1984.
 16. 이진희. 영유아 영양법 및 이유실시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33(1) : 61, 1977.
 17. 김경희, 이근, 김충희, 이근수, 신상만, 한동관, 문수지. 한국 영유아의 수유실태조사, 소아과, 28(10) : 8, 1985.
 18. 문영임. 지역적으로 본 우리나라 어린이의 영양법, 카톨릭의대논문집, 26, 1974.
 19. 이기열. 특수영양학, 신광출판사, 1990.
 20. 주진순. 우리나라 영유아 영양의 현황과 문제점, 영유아 영양개선 결과보고서, 보건사회부, 15, 1981.
 21. 보사부. 국민영양 조사보고서, 1991.
 22. Purvis, G. A.. Current Status and Future Trends in Infant Feeding, 한국영양학회지, 24(3) : 276, 1991.
 23. Fomon, S. J.. Reflections an Infant Feeding in the 1970. and 1980., Am. J. Clin Nutr, 46, 171, 1987.
 24. 홍대식, 장우식. 내원환아 및 육아상담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조사, 소아과, 25, 347, 1982.